光州日報

제1790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9일 (음력 9월 30일) 금요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8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혁신도시 현장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 전윤철 감사원장, 이용섭 건교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기공식 발파 터치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서남권 발전계획 年內 발표"

盧대통령 재천명…"환황해권 거점마련 가치있는 투자"

어제 나주 혁신도시 기공·무안국제공항 개항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축인 서남권 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서 열린 무안국제공항 개항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서남권, 특히 무안·목포·신안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남권 개발은 지역발전 차원을 넘어, 환황해권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가치있는 투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무안·목포·신안권에는 대규모 관광·레저벨트를 조성, 해외로 향하는 관광수요를 국내에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조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 산업도 적극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며 "이곳은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의 지도자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청와대에 넣지 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하고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들은 당당히 공약을 내놓고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에 726만4천㎡ 규모로 들어선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서남권·F1특별법 협조 못한다"

한나라 '협조 약속' 뒤집어…전남 대형 현안사업 표류 우려

서남권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특별법)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F1특별법) 등 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 구애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법안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 새만금특별법과 연안개발특별법은 정기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서남권특별법과 F1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폐회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다음주까지 전남지역 현안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서남권특별법과 F1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나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불가피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남지역 대형 현안 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의 선택! 희망2007 지방신문協 대선 4차 공동 여론조사

李 39.8%, 昌19.8%, 鄭 10.5%

昌 출마선언 하자마자 2위…李 15.2%P 하락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을 격랑속으로 밀어넣은 이회창 후보(전 한나라당 총재)의 무소속 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전국 지지도에서 이 후보가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달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선두를 달렸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3위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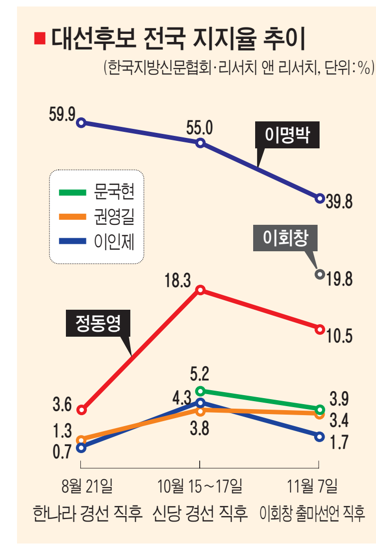
▶해설 4면

이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9개 유력 지방일간지가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7일 오후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대선 공동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39.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지켰지만 지난달 조사(본보 10월 19일자 1면)때 보다 15.2%포인트 하락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9.8%를 기록해 공식 출마 선언과 동시에 2위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후보 선출 직후 18.3%를 기록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0.5%로 두 자릿수에 턱걸이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3.9%,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4%,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1.7%를 기록해 지난달 보다 각각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에서 이회창 후보가 31.8%를 얻어 31.3%에 그친 이명박 후보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호남지역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38.3%를 기록해 1위를, 이회창 후보는 10.0%로 2위를 차지했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에 대해선 49.1%가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36.5%였다. 다음주 귀국 예정인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됐다'고 주장할 경우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계속 지지의향을 물은 결과 63.2%는 "계속 지지", 25.8%는 '지지 철회' 입장을 각각 보였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57.1%로 '높다'(21.5%)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다. 범여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에선 정동영 후보가 37.1%로 가장 높았고, 문국현 후보 20.2%, 이인제 후보 13.9%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社告

문화수도 스토리텔링 세미나

16일 오후 2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세미나실

광주일보사는 (재)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방송, 캐릭터, 모바일 등에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문화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애니메이션과 게임, 공간(장소)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토리텔링에 관심 있는 문화콘텐츠 업계 실무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 시=2007년 11월 16일(金) 오후 2시~6시
▲장 소=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세미나실
▲사 회=김병인(전남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박기수(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혜원(계원조형예술대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교수), 한창완(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문 의=(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350-2448

주최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관 : 光州日報社,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